

3월 11일(월) / 샏 13-15장

▶**내용요약:**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할 자였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밝히 드러났던 사람이다. 그는 장성하여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였다. 그리고 한 번은 블레셋 사람 천명을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워서 무찔렀다. 무찔렀던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하였다. 거기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 그 샘물을 엔학고레라 하였다.

▶**질문:**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던 사람은 누구인가?(삼상 15장)

▶**생각하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고, 도리어 여자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다. 그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3월 14일(목) / 룻 1-4장

▶**내용요약:** 나오미는 남편 엘리엘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죽는 슬픔을 맛보았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어느 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 후일 보아스는 기업무를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즉, 엘리엘렉이 남긴 밭을 샀고,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다.

▶**질문:**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을 참고하라.

▶**생각하기:** 보아스의 어머니는 어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다. 보아스는 오늘날로 하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룻은 모압에서 온 과부였다.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불행한 여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헤쳐나갔다.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야 한다.

3월 17일(주일) / 삼상 8-11장

▶**내용요약:** 사무엘이 늙어서도 사사로 다스렸다. 그의 아들들은 부도덕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고,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울의 지도 하에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3월 12일(화) / 샏 16-18장

▶**내용요약:**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한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삼손의 머리털이 그 여인에 의해서 잘려진 후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털은 그가 잡혀 있는 동안 점점 자랐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려 수천 명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다. 삼손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양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갔다.

▶**질문:**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세운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라고 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샏 17장)

▶**생각하기:** 삼손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 혼탁해져갔다.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고, 그 임의로 세운 제사장을 데려가서 단 지파는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에 모든 영역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었다.

3월 15일(금) / 삼상 1-3장

▶**내용요약:** 에브라임 족속에 속한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었다. 한나와 브닌나였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 한나는 그 당시 어두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릴 것으로 서원하였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어드렸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시작될 왕정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질문:**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하였는가?(삼상 1:10)

▶**생각하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폭식하기도 하고,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했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의 어두운 영적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시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였다. 개인적인 괴로움에서 시작한 기도가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왕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선포하였다.

▶**질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이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몇몇 불량배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부정적인 말을 하였으나 그것을 못들은척 하였다.

3월 13일(수) / 샏 19-21장

▶**내용요약:**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여인이 레위 사람의 첩이 되었다. 그 여인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자신의 남편과 어떤 집에서 머물다가 불량한 사내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었다. 레위인 남편은 그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다. 초기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였으나 결국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질문:**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선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하면, 세상은 부패하고 혼탁해진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옳수록 사람들은 다양한 선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윤리기준을 명료하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

3월 16일(토) / 삼상 4-7장

▶**내용요약:**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앙이 임하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리게 하였고,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게 하였다.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다.

▶**질문:**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삼상 7장)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자들을 벌하자고 백성들이 말할 때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포용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는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지낼 수 있었다.